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복음 안에서 문안함**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신분이다. 그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또 자신을 그의 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와 주님이시다. 우리는 사람이나 돈이나 쾌락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에게 즐거이,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또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6:13, “밖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使徒)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과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명칭이다. 열두 제자 중 가롯 유다가 배신했으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가롯 유다 대신 맛디아를 뽑았다(행 1:26). 사도행전에서 예외적으로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사도들’이라고 두 번 불리었다(행 14:4, 14 원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해설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전달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놓은 자들이었다(엡 2:20).

그러므로 신약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파악하기 위해 사도들에게로, 즉 그들의 글들인 신약 성경으로 나아가야 한다.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확인하는 길이다. 종교개혁시대에 많은 학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어떤 교훈과 노선이 바른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루터는 비록 한 사람의 천주교 신부이었지만 성경의 확실한

지식과 확신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 수 있었다. 다른 개혁자들도 그러하였다. 오늘날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참된 교회들과 종들은 오직 성경으로 가야 한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 구약성경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하였었다. 창세기 3:15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나 창세기 12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씨’나 창세기 49:10에 예언된 ‘실로’ [안식의 사람]나 이사야 9:6의 신적 아기의 탄생이나 미가 5:2의 그의 근본이 태초인 자 등이 그것이다. 기독교 복음은 구약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구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의 말씀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요 5:39; 눅 24:27, 44).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자손에서 나셨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다. 그는 참된 인성(人性)과 참된 신성(神性)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본질의 ‘육신’이라는 원어(사르크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참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그의 몸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도 그러하셨다. 즉 그는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셨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성취이었다. 예레미야 23:5,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에스겔 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호세아 3:5,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들의 성취이시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마 1:1)는 말로 시작된다.

[4절] 성결의 영(프뉴마 히키오쉬네스)으로는 죽은 가

운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거룩한 신성(神性)의 영을 가리킨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인성(人性)으로는 다윗의 지손이요 신성(神性)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는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하심이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 사실들이다. 고린도전서 15:1-4,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반드시 확인하고 믿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인정하다’는 원어는 ‘확정하다, 선언하다’는 뜻이다. 영어성경들은 ‘선언되었다’라고 번역하였다(KJV, NASB, NIV).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인정되고 확정되고 선언되신 것이다.

이 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증거하였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중심 인물이시며 복음 자체이다. 그는 죄인들의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시다. 그는 슬픔과 불행, 절망과 허무, 죽음의 그늘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시다. 그 안에 구원과 영생, 기쁨과 소망이 있다.

[5-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는 사도의 직분에도 관계된다.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도 무자격한 자들이다.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었다. ‘믿어 순종케’라는 원어는 ‘믿음의 순종을 위해’라는 뜻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순종 곧 마음의 순종이다(롬 6:17). 마음으로 순종한 자는 물론 행위로도 순종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였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무리 중에 들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다. ‘부르심’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의 양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만 그의 부르심을 입고 그들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고전, 고후, 갈 외에는 작은 글씨로 첨가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전, 고후, 갈 외에는 ‘있을지어다’라고 번역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성도(聖徒,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진 무리들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화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불가능할 것이다. ‘평안’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복음이며 복음의 전달자는 사도들이며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구약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자이시다. 그는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셨다.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그의 사도들의 글인 신약성경을 통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구원의 복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안을 더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는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과 거룩하여짐과 온전해짐, 즉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과 물질적 안정과 환경적 평안이 필요하다.

주일오후설교 **요셉의 고난과 형통**

[창 39: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시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종으로 샀다. ‘시위대장’은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직위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렸고 그것도 바로의 시위대장에게 팔렸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 그는, 에녹과 동행하시고(창 5:22) 노아와 동행하셨듯이(창 6:9),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시고(창 21:22) 이삭과 함께하시고(창 26:3, 28) 야곱과 함께하셨듯이(창 28:15, 20), 요셉과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는 원어(찰라크)는 ‘잘되다, 성공하다’는 뜻이다. 요셉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슷하였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

전지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는다. 그는 몸의 건강도 경제적 안정도 전쟁의 승리도 얻는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는 말을 보면, 요셉은 주인이 맡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에게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을 들었다(창 21:22). 또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는

말을 들었다(창 26:28).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얻는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에도 증거가 된다.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가사 관리인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입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종에게 큰 복이다.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요셉의 인격의 됴됨이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진실한 사상과 인격성, 도덕성에 있다. 말 잘하는 것이나 지식과 기술이 많은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좋은 요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상과 인격성과 도덕성이다. 정직함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인내심 등의 덕성이 그것이다. 그것은 무슨 중요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질 자의 자질이다. ‘가정 총무’는 집안일의 총책임을 가진 자, 즉 가사 관리인이다. 그의 주인은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였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 복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본문은 책임자의 역할이 큼을 보인다. 무슨 일을 책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맡은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식품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윗사람의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신임을 얻는 인격이 좋은 인격이다. 요셉은 또한 용모도 잘 생겼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7-9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요셉을 쳐다보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家中)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得罪) 하리이까?

요셉의 종살이가 형통한 것 같은 때 그에게 시험이

닥쳐왔다. 사람에게는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시험이 있다. 요셉의 시험은 그 주인의 아내로 인해 왔다. 그 주인의 아내는 단정치 못했고 욕망을 품은 눈으로 요셉을 쳐다보며 자기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주인이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지만 그의 아내는 아니었다. 만일 그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의 주인에게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다. 간통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요셉은 올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

[10-12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주인의 아내는 전혀 도덕성이 없었다. 요셉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가 범죄할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는 그 위기를 잘 모면했다. 음행의 죄는 기회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13-19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 같이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그는 자신의 단정치 못한 말과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기 는커녕 요셉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잘못이 없는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갑절이나 더 나쁜 일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헤쳐는 안 된다.

[20-21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仁慈)를 더하시라 전옥[교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어서 감옥 책임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전옥'은 '감옥 책임자' 즉 오늘날 말로 하면 '교도소장'이다. 요셉에게 고난은 있었지만, 그

는 그가 처한 현실에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

[22-23절] 전옥교도소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 책임자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윗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경건에서 나온 인격성과 도덕성 때문이었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인내심이 있었음에 틀림 없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일을 책임 맡은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인격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 [종살이 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신약성도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사모한다.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려 조심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신 것은 그의 경건과 도덕성 때문이다. 그는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자기를 신임하는 주인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알고 죄 짓지 않으려 조심했다. 시편 54-6,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시편 1: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다."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